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개요

2025. 06 . 02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은

장애인들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Arts)로 함께(All Together)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축제 주제 및 Festival Identity



‘A’는 장애인들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을 의미하며,
‘+’는 또 다른 A로 예술(Art)로 함께 한다(All Toghther)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모토를 나타냅니다.

점수의 ‘A’와 등급의 ‘A+’ 보다는 모든 ‘개인(All)’이 ‘플러스(+)’ 되는 축제,
획일화된 전체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며 더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업개요

- 행사명칭 : 2025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 행사일시 : 2025년 9월 23일(화)~28일(일), 6일간 / 예정
- 행사장소 : 마로니에공원,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 예정
 - * 사업일시 및 장소는 대관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개막행사, 공연 및 전시, 부스체험, 키즈, 마켓 등
- 주최단체 :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 주관단체 : 2025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
- 후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협력기관 : (재)종로문화재단

사업목적

- 장애인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
-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와 수월성 확보
- 장애예술인을 위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및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역대축제



마스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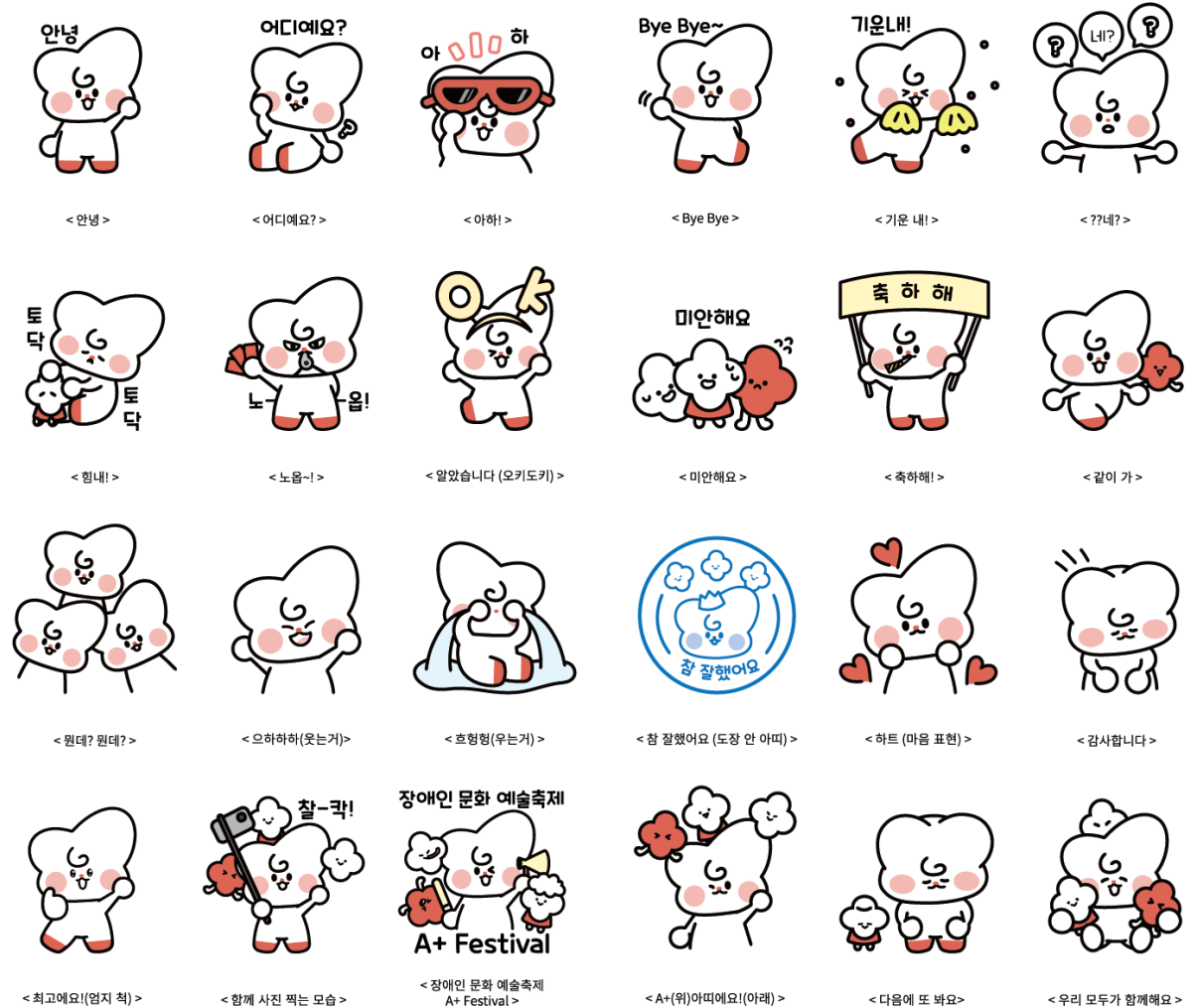


마스코트 '아띠' 와 '예띠'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의
A+ 모양을 본뜬 마스코트 '아(A)띠(+!)'

친근하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 아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아띠 곁을 지키는 예띠들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예술로 하나가 되어 늘 함께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는 세상,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이곳저곳을 누비는 친구들을 기대해주세요!



행사장소



선정테마

찬란하다



별이 머무는 자리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입니다.
서로 다른 빛깔과 온도를 지녔지만, 그 자체로 찬란한 존재입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의 반짝임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찬란함은 단지 눈부신 찰나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통해
기억되고, 퍼져나가고, 영원히 살아 숨 쉬는 가치를 만듭니다.

별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향해 반짝일 때,
비로소 별자리가 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빛들이 어우러질 때, 세상은 더 눈부신 조화를 품게 됩니다.

장애예술은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감각에서, 다름의 시선에서 태어난 가장 특별한 예술입니다.
다름은 어긋남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피워 올리는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별들이 만납니다.
서로의 빛을 알아보고, 이어지고, 함께 찬란한 하늘을 만듭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 됩니다.



테마의 의미

누구나 별이 되는 시간

‘찬란하다’는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한 빛을 의미합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특별하며,
이 축제는 그 빛을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빛의 조화

찬란함은 개인의 빛을 넘어,
다양한 존재가 어우러질 때 더 큰 아름다움으로 드러납니다.
장애예술은 ‘다름’에서 비롯된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기억에 남을 가치 있는 순간

‘찬란하다’는 단지 눈부신 찰나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되고 영향력을 지닌 순간을 의미합니다.
축제는 이 순간을 영원한 가치로 남기고자 합니다.

다름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장애예술은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시선에서 피어난
특별한 가능성과 예술적 확장의 상징입니다.

다름이라는 반짝임에서 피어난 특별함이 있습니다.
서로의 반짝임이 이어져 함께 찬란해지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상징물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의 별**입니다.

별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듯,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더 큰 의미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

우리의 빛은 하나로 이어져, **찬란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별’은 이번 축제가 지향하는 **특별함과 연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찬란함**을 상징합니다.

감사합니다.

